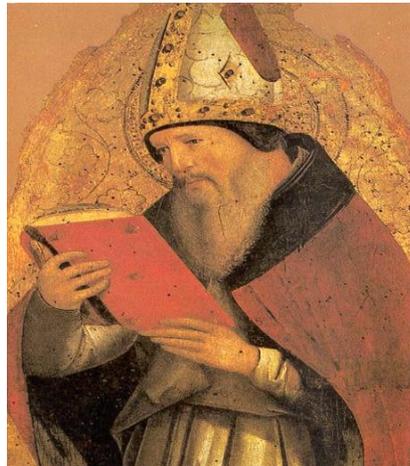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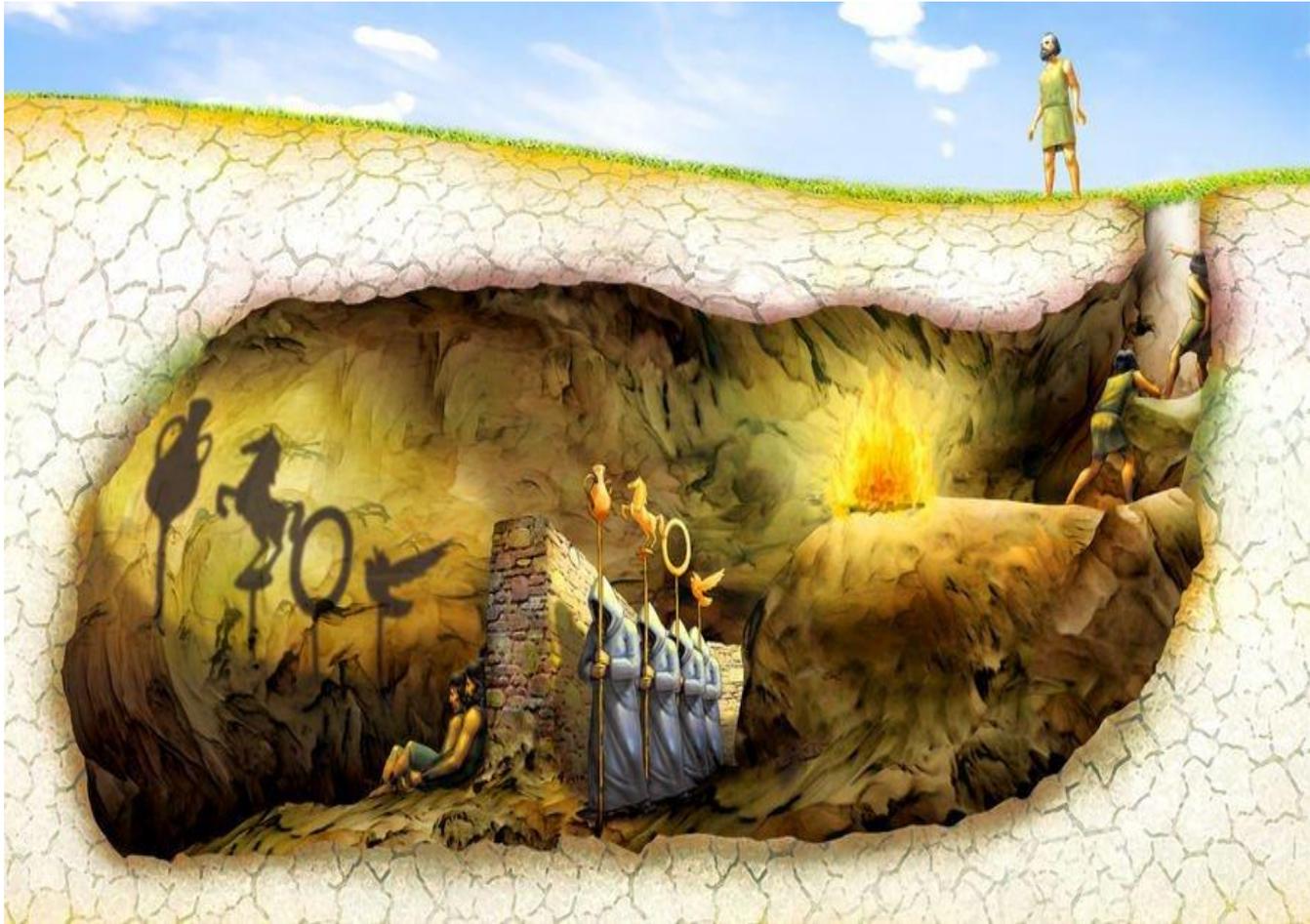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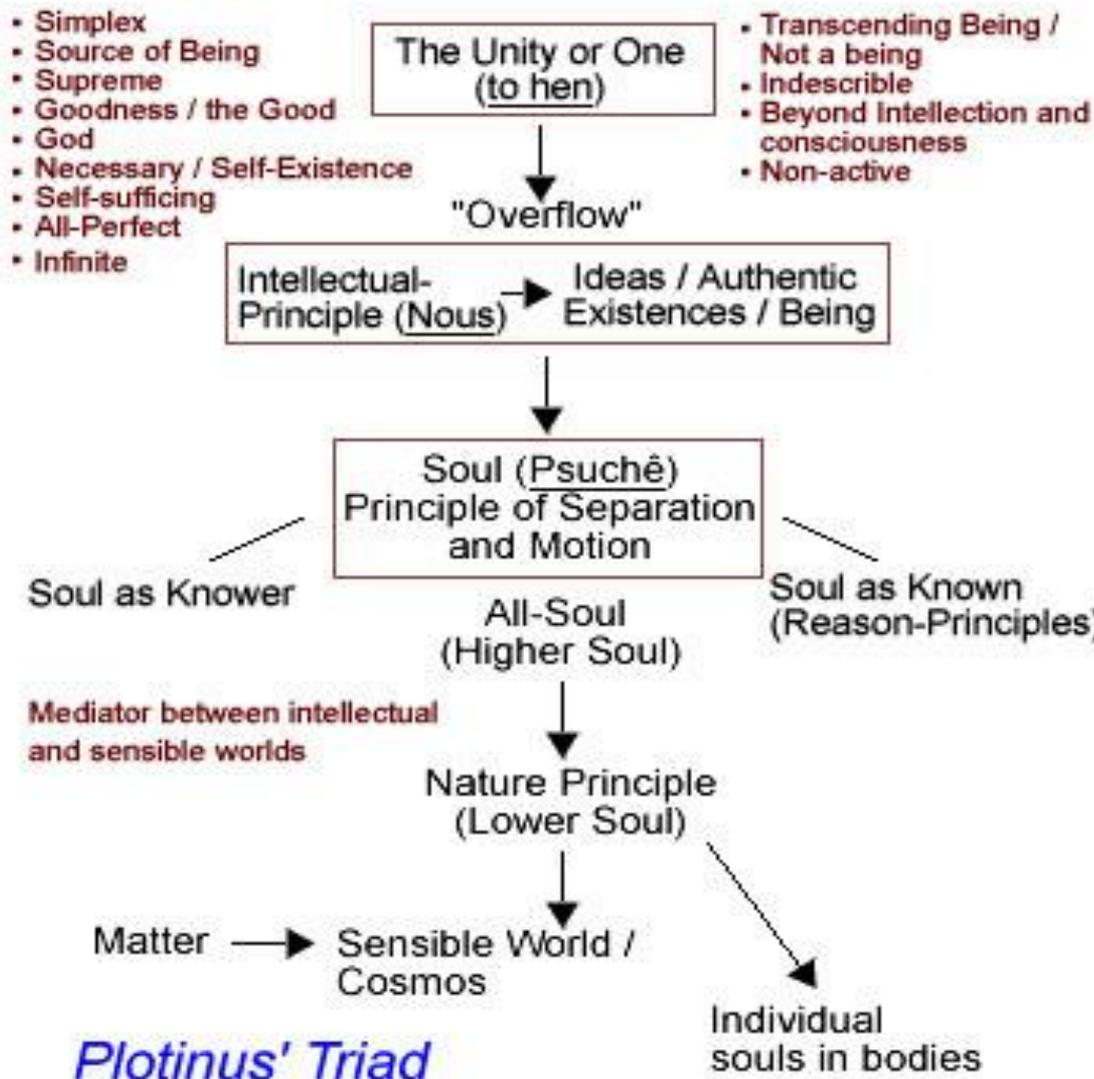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Saint Augustine of Hippo, 354-
430)**



『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상식적인 물질주의였다. 어거스틴이 비물질적 실체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글을 접하게 되면서 부터인데, 이는 특히 악의 본질과 악의 문제에 대한 **마니교**적 사고의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자들로부터 배우게 된 존재론적 사고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지적이며 영적인 것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존재론은 마니교의 도덕적 이원론과는 다르다. 마니교의 빛과 어두움의 본질이 횡적인 구분이라면,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은 일체의 위계로 정의되는 수직적 구분이다. 이를 기독교 신학과 접목함으로써,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궁극적 근원이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존재자체이며, 선 자체이고, 진리이며,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위계질서 안에서 절대 불변하는 존재이다.





초기저작에서 어거스틴은 주로 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대조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감각의 세계는 불가피하게 사적이며 소외되어 있지만, 지적인 영역은 공적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에 개방되어 있다. 한편, 감각의 세계는 일시적이지만, 지적 세계는 실재를 포함한다. 『고백록』에서 **감각 세계는 일시적이며 소멸되는 세계이지만, 지적 세계는 인간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상태로 살 수 있는 불멸의 영원의 특징을 지닌다.** 어거스틴은 죄와 악의 문제는, 감각의 세계 자체가 악의 세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각의 세계에 살면서 감각의 세계가 제한적이며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본다. 즉, 실재하는 세계가 감각적 영역과 지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어거스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의 합리적 보성과 신플라톤주의의 합리적 본질의 존재론을 통해, 낙관적인 인간론을 주장한다.

두 도성론에서 어거스틴의 현실 이해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그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더럽혀진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하는 현실 세계란 신의 도성과 인간/세속의 도성의 발전으로 구성되는 역사이다. 신의 도성에 속한 선택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며, 인간의 도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 현실에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 세계는 신의 도성의 사람들과 인간의 도성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도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이 곧 구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역사란 단지 역사의 현실 이면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이야기의 흔적에 불과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에는 **이 두 도성이 완전히 구분되고, 모든 사람들은 이후 부활하여 각각이 속한 도성에 연합하게 된다.** 신의 도성의 시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반면, 인간의 도성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2의 죽음, 곧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인간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은 고대 그리스 주지주의(intellectualism)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 자신의 신플라톤주의적 기독교는 다른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비해 지식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견해는 인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비이성적 요인들에 대한 사고와 더불어 변화된다. 어거스틴의 초기 저작인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하여”에서 어거스틴은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후 그는 그리스 철학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보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의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펠라기우스파와의 논쟁에 있어서,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늘어나게 된다.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인간의 의무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을 둔다는 것으로서, 인간이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원죄와 은총의 역할에 대한 기존 정통 기독교의 교리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고, 은혜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돕는 부수적인 것으로 정의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한 427년에는 은총 없이는 원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그의 결론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과에 대하여 미리 알고 계신다는 예정론을 확립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원죄로 인해, 의지만으로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자유 의지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따라서 원죄 하에서 인간은 오로지 죄를 지을 자유의지만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지에 대한 어거스틴의 후기 사고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간 의지에 대한 비관론을 확립한다.

어거스틴의 **인간론**은 그의 존재이해에 잘 나타난다. “내가 당신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 그것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도 아니요, 참으로 존재하지 않은 절대적 비존재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존재하는 것이나 당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비존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비존재도 아닌 중간쯤의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이 존재의 속성은 따라서 연약하며 그렇기에 서로 연합하여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보다 더 좋으나 모든 피조물이 함께 화합해서 존재한 것이 위에 있는 존재가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에게 인간의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교만하여 있는 상태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왜곡을 통하여 **악이 필연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사슬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의지의 죄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육욕이 생겼고 육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해 필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지의 왜곡은 육욕으로 그리고 육욕은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는 피할 수 없는 죄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아픔을 통해서 또는 쾌락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괴로움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육체적 감각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성자들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속사람이 세상을 추구하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영향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저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 책에는 경건의 표현, 고백의 눈물, 당신의 희생, 괴로워하는 마음, 상하고 참회하는 심정, 겸손, 당신의 백성의 구원, 당신의 신부인 도성, 성령의 보증, 우리의 구속의 잔이 있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사상은 플라톤주의의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국가관**은 그의 고전적인 현실주의 입장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즉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인간 세계의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어떤 사회든 자기사랑의 정도가 지나칠 때 이를 시정시켜야 할 강제적 힘이 필요하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지상의 국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땅의 도성을 통치하는 제도가 된다.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 이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국가관은 **전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 초기 기독교는 평화주의에 근거하지만 그러나 점차로 기독교의 인구가 증가하고 로마제국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는 자연히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4세기와 5세기에 들면서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을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이 후에 정당 전쟁론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입장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바른 지도자의 통제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권위와 결단이 도덕적으로 옳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 군주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무력 행사였던 것이다.

어거스틴은 **전쟁의 목적과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수단들이 항상 정당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와 그 전쟁이 누구의 리더십에 의하여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것은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평화는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이 수행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전쟁을 유발하는 불순한 동기들에 대하여 경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나, 보복이라는 잔인성, 분노에 의하여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성, 격분에 의한 충동, 지배하고 싶은 욕망 등과 같은 것들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평화와 전쟁이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하다가 평화가 이겼다. 왜냐하면 전쟁은 무장한 군사들만 거꾸러뜨렸지만, 평화는 비무장한 사람들마저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은 공격당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반격의 기회를 주었지만, 평화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저항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죽음을 수여했기 때문이다.”